

감리지적사례 FSS/2106-10 : 대여금 허위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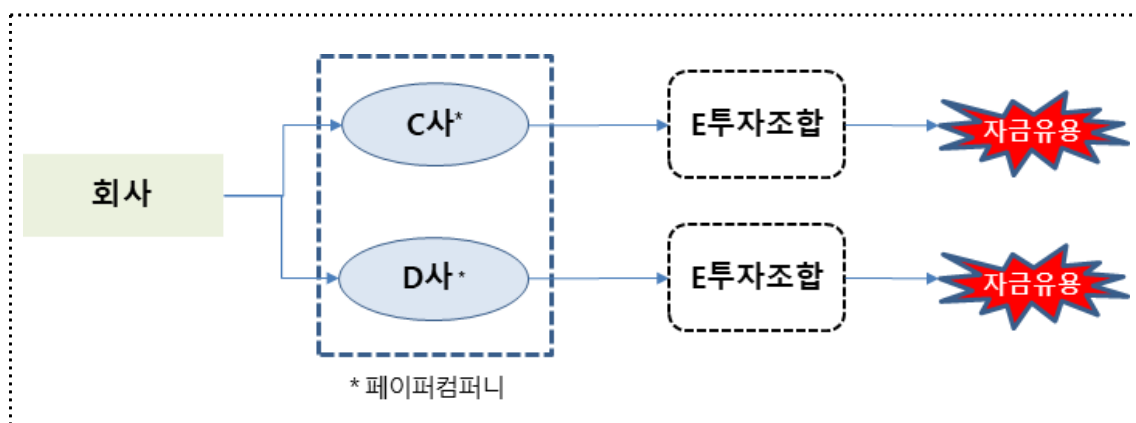
- 쟁점 분야: 선급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7.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2B전자결제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과거 무자본 M&A 전력이 있는 B는 '17년 저축은행 차입금과 본인 소유 회사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친인척 등을 경영진에 선임하고 투자의사결정 및 자금거래를 지시하였다.

B는 '17년중 C사, D사 등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C사, D사는 동 자금을 다시 출자금 형식으로 E, F투자조합으로 이체한 후 E, F투자조합이 이를 투자부동산 취득 등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E, F투자조합으로부터 인출하여 자금을 유용하였다. 회사는 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체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사후에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금 흐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경영진이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절차 없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여를 가장하여 영업 외의 용도로 회사자금을 무단인출하고 사후적으로 계약서 및 담보서류 등 증빙 자료를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자금유용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은 자산의 실재성 및 회수가가능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문단 17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240(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 중 식별된 상황으로 인해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채권조회 확인, 담보 관련 서류 확인 등 자산의 실재성과 회수가가능성 확인을 위한 일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부분적인 자금이체증빙만 확인하는 등 계약서에만 의존하여 대여·출자금의 실재성을 인정하였고 결산일 직후 대여상대방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이 해지되는 등 담보설정경위 및 담보가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없이 회사 주장을 수용하는 등 경영진의 부정위험을 적발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과 회사의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해당 계정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감사증빙을 확보하여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